

전북도 문화재 활용사업 전국 으뜸

공모사업 2년째 최다 선정
27개 사업 총 32억원 확보
고품격 문화관광사업 육성

전북도는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개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전통산사 문화재' 등 2018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인 27개 사업,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하는 최대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2018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456건(전북 43건)의 사업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9월에 277건(전북 27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근 문화유산 활용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창출에도 특색있는 몫을 함께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문화재 야행 공모에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사업이 선정돼 1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문화재 야행(夜行)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전주, 군산, 고창 등 3개 시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도 야행은 올해 운영한 3개 시군과 익산시의 '백제무왕은 아름다운 왕궁을 왜 익산에 지었을까?'가 새로 추가돼 특색 있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 전북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2018년 생생문화재 공모에서는 전주시 및 군산시 등 9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5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공모에서는 정읍시 및 남원시 등 9개 시군에서 9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5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2018년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공모에서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남원 실상사 및 전주 남고사 등 4개 전통산사가 선정돼 총사업비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문화재 활용사업 정부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삼락 로컬마켓 개장식 도내 14개 시·군 우수 농·특산물이 한 곳에 모이는 전국 최초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인 '전북삼락 로컬마켓'이 21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장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및 참석자들이 광역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있다.

뉴욕 물 들이는 '평창의 밤'

문 대통령 평화올림픽 홍보
"완벽한 준비... 성공 확신"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회 안전과 운영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이번 홍보행사에 참석했다. 유엔 일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함께 참석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올림픽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긴장이 고조돼 있지만 그래서 더욱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이 함께한 경험이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대회와 태권도 대회에 북한이 참여한 사례를 들었다. 그동안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주행 자동차를 타볼 수 있다. 세계 단 동시 입장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 스포츠 교류사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야만 하는 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은 그 이름부터 올림픽 개최지로 제격인 곳이다. 평화롭다는 뜻의 '평'과 번창한다는 뜻의 '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평창'이라며 "화합과 평화 증진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자 북유럽의 설원과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라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지리적 장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뜻 깊은 대회"라며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회 준비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안전도 걱정하지 말라"는 문 대통령은 "한국은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지금까지 국제적인 테러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전 올림픽이 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올림픽을 선물하려고 한다"며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버스·승용차·SUV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볼 수 있다.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도 기관·단체 인권협 발족회의... 첫걸음 내딛어

전북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인권협의회는 도민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해 도내 기관·단체 간 정책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권정책의 공유·의견수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인권행정이 필요한 전북지방경찰청, 전북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아동복지협회, 전라북도청소

년상담복지센터, 다누리콜센터,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11개 기관 12명(위원장 행정부지사)으로 구성했다.
이는 전라북도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시행 첫해로써 인권행정기반과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인권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인권협의회 첫 모임에서는 각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인 인권관련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공유하

고 분야별로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동·아동·청소년 등 인권침해 상담·조사 시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복사무소 설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인권 우선성을 포함·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도내 기관·단체와의 정책공

11개 기관 협력강화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며 "도민 인권보호와 인권 의식개선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단위중 세 번째로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특히 장애인 인권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전라북도 인권정책 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구현을 위해 공무원 및 도민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상담, 장애인인권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올 추석 의료상담 예년 比 4배 많다

소방청, 비상근무체계 전환
인력 보강·장비 추가 설치

소방청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병·의원 휴진 등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가장 10일 간의 연휴로 인해 병원·약국, 응급의료 상담건수가 예년(평일 대비) 보다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18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접수 준비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연휴기간 중 과식으로 급체를 하거나 변질된 음식을 먹고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낯선 지역에서 산행이나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119에 신고할 것을 소방청은 당부했다.
의사나 구급상황관리사로부터 간단한 응급의료 상담은 물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인근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상담 중 심정지, 심뇌혈관 환자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119구급차를 출동시킨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예년에 비해 추석 연휴기간이 길어 귀성객 이동과 야외활동의 증가로 응급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19구급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